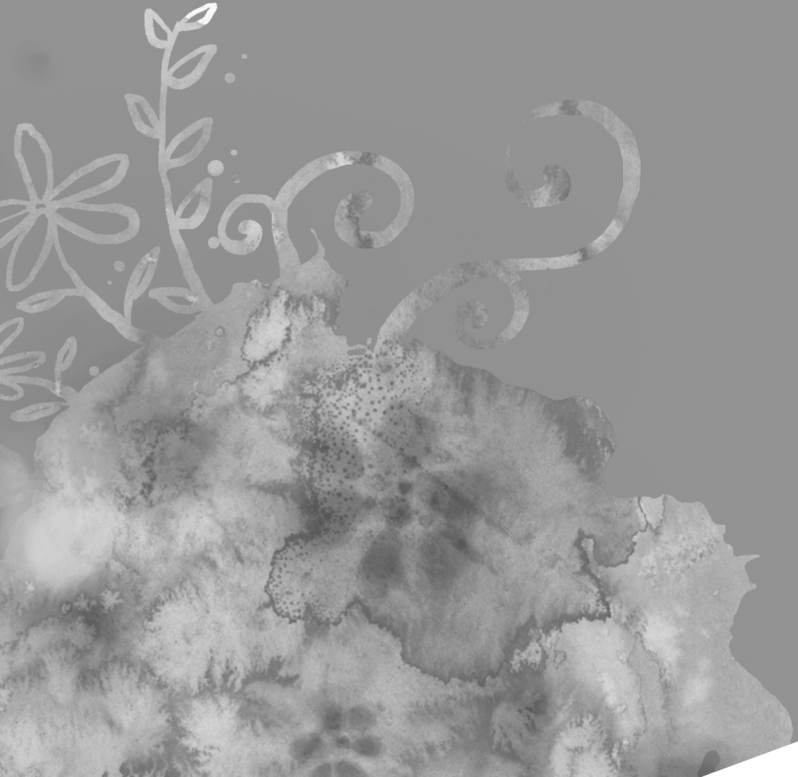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개선 토론회

2010. 12. 13 월요일 **14:00**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대학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 본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Arts Agencies

목 차

Ⅰ. 토론회 개요 7

Ⅱ. 세션 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방안

발제_윤성진 | 안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11

토론_모상근 |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과장 21

김해보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25

Ⅲ. 세션 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성공전략

발제_송필석 | 을숙도문화회관 공연기획팀장 31

토론_양종남 |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38

김영욱 | 서대문문화회관 관장 42

Ⅳ. 세션 3 극장과 예술단체가 함께 성장하는 공연문화

발제_유형민 | 한소리회 기획실장 49

토론_강경석 |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54

김옥련 | 김옥련발레단 대표 57

Ⅰ. 토론회 개요

Ⅰ.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0. 12. 13.(월) 14:00

❒ 장소 :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대학로, 예술위원회 前 본관)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관 :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 행사일정표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개회사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
세션 I	14:10~15: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 방안
		발제〉 윤성진(안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토론〉 모상근(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과장)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세션 2	15:00~15:5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성공전략
		발제〉 송필석(을숙도문화회관 공연기획팀장) 토론〉 양종남(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김영욱(서대문문화회관 관장)
휴 식	15:50~16:00	휴식
세션 3	16:00~16:50	극장과 예술단체가 함께 성장하는 공연문화
		발제〉 유형민(한소리회 기획실장) 토론〉 강경석(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김옥련(김옥련발레단 대표)
종합토론	16:50~17:20	질의응답 및 토론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개선 토론회

Ⅱ. 세션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방안

발제문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방안

윤성진 (안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I.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개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10년도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의 내용 중 사업개요와 사업운영 사항 중 주요사항만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도입배경

- 지역 공연예술단체의 경우 공연장·사무실·연습실 부족으로 안정적 창작활동 수행 어려움
- 지역 문화예술 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전문 공연예술단체 육성 모델 필요
- 전국 167개 문예회관의 가동률 및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단체 및 레퍼토리 개발 필요
- 예술지원 4대 원칙에 따라 공연장·전시공간 등 문화시설을 통한 간접지원형 및 선택과 집중형 사업 개발 필요

  (※ 예술지원정책의 4대 원칙 :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속의 예술 확대)

- 국공립 공연장의 전속공연단체의 특권적 지위로 인한 비효율성 심화

  => 전속단체들의 상주단체화
- 특정 공연장의 자발적 상주단체 계약, 운영의 성공사례 발견

  => 과천 시민회관 '서울발레시어터', '극단 모시는사람들'
- 창작지원 중심에서 향유자 지원 중심으로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변화

  => 문화복지 차원에서 지역문화예술회관 등 공공문화공간의 운영 효율성에 대한 요구 증대

I.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개요

2.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운영 목적

공연예술단체와 문예회관·소극장 등 문화시설 간의 인적·물적 협력 관계 조성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의 활성화 도모

공연장

- o 사무공간 및 연습실 공간 제공
- o 안정적 공연장 활용 기회 제공 (대관 우선 확보)
- o 기획·홍보·마케팅 기능 제공

상주단체

- o 지속적 공연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 o 공연장 가동률 향상 제고
- o 공연장 운용 활성화 촉진

3. 추진효과

구분	사업효과
공연장	o 우수 레퍼토리 확보, 관객개발 증진 및 공연장 가동율 제고 o 예술교육 등 Out-Reach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o 시즌제 정착(공연장 자기색깔 찾기) 기반 마련
상주 예술단체	o 안정적 단체운영 기반 확보 - 연습·행정공간 등 물적기반(H/W) 확보 - 홍보·마케팅 등 유통기반(S/W) 활용 o 우수 작품 창작 매진 및 발표기회 확대
지역주민	o 우수 공연프로그램 향유기회 증진

I.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개요

4. 지원대상

<공연장>
- 공공 및 민간 공연장 불문
  · 주요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민간 공연장까지 확대 (지역문화재단 운영 공연시설도 참여 가능)

<예술단체>
- 지원자격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교육 전문단체

분야	지원대상단체
음악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 단체 등 창작·연주 전문단체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무용단
연극	연극분야 전문 극단
전통예술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 공연 및 창작 단체

I.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개요

5. 공연장-예술단체간 계약조건

o 전문예술단체와 공연장간에 협약에 의해 추진하되 사업기간은 2년으로 하고,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연장 가능

o 양자간 명확한 약정 및 계약 체결 등 상호 유대관계 형성에 중점

<약정체결 예시>

문예회관 제공사항	예술단체 제공사항
. 사무실, 연습실 등 공간 무상제공 . 대관료 면제 . 선 대관 혜택 . 작품 공동제작 참여 . 작품제작 및 단체 운영비 지원	. 연 일정횟수 이상 공연 실시 . 지역순회 공연(복지시설, 학교 등) . 교육 및 관객개발프로그램 운영참여등

o 전문예술단체와 공연장간에 협약에 의해 추진하되 사업기간은 2년으로 하고,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연장 가능

I.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개요

6. 심사기준 - <공연장>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지표
계 획 (50)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25)	○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 - 공연장 여건 및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여부 - 관객개발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 ○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 예산 및 자원 확보 여부 - 기타 유사 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
	상주단체 지원계획 (25)	○ 상주여건 마련 노력 정도 - 상주 예술단체에게 제공 가능한 공간 등 마련 - 상주단체와 협력을 위한 준비사항 및 사전노력 ○ 상주단체와 적극적 협력 여부 - 상주단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활동계획 마련 여부
역 량 (50)	마케팅 및 기획 역량 (25)	○ 인적역량 -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 홍보.마케팅.기획 인력 보유 현황 ○ 신청주체의 활동실적 - 기획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마케팅 실적
	시설 및 운영 역량 (25)	○ 시설 및 운영 현황 - 객석규모, 무대시설 현황, 부대시설 등 - 가동률, 객석점유율, 기획프로그램 제작비율 등 ○ 인력현황 - 무대시설 및 전문기술인력 보유 현황

I.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개요

6. 심사기준 - <공연예술단체>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지표
예술적 역량	활동실적	○ 최근 3년간 공연실적 및 수상실적 - 창작활동 실적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적 - 각종 대회 및 예술제 참가, 수상 실적 - 각 기관별 지원금 수혜내역 및 사업수행 실적 - 관객개발 성과 ○ 단체에 대한 외부 평가 - 언론 및 예술 전문지 공연평 등
	조직역량	○ 조직 운영 역량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또는 사회적 기업여부 - 보유 인력 및 구성 인력 현황 - 단체의 조직운영 및 경영상태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 프로그램의 우수성 -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 차별성, 완성도 - 단체의 역량으로 예측가능한 예술적 완성도 - 해당분야에 미칠 파급효과, 예상 기여도 ○ 실현가능성 - 공연장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여부 - 공연장의 계획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여부
	협력 의지	○ 공연장과 매칭 가능성 - 공연장과 기 상주협약 체결 여부 - 공연장에서 희망하는 조건 충족 여부 ○ 물리적 상주 희망 여부 - 물리적 상주를 통한 공연장과 협력의지

I.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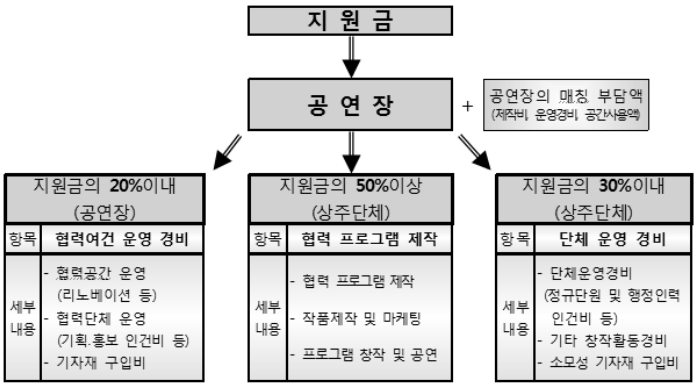
7. 지원항목

ㅇ 공연예술단체

- 무대제작비, 홍보비, 조명 음향 디자인비, 출연(연주)료, 작품료, 저작권료, 행사보조요원 수수료 등 공연제작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체 및 재료비, 강사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체(전체 지원금액의 50% 이상)
- 정규단원, 기획행정인력의 인건비 등 단체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전체 지원금액의 30%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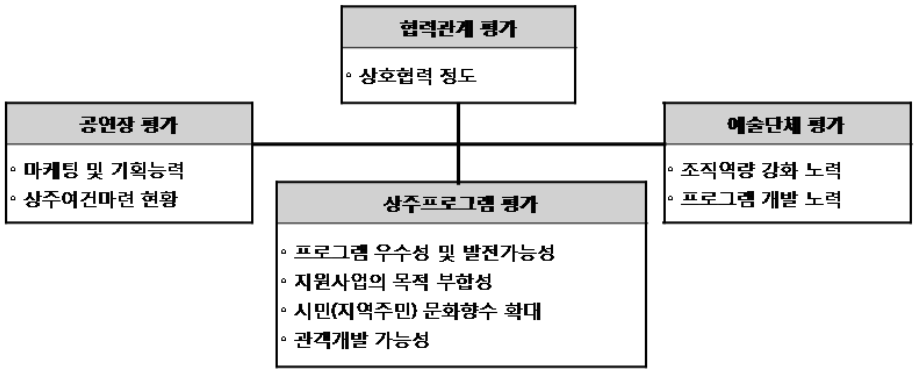
ㅇ 공연장

- 시설비, 임차료, 대관료 등 공연장에 필요한 경비(전체 지원금액의 20% 이내)



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개요

8. 평가 주안점



9. 2009년도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선정 결과

• 서울 : 10개 공연장 / 23개 공연예술단체
(1개단체 – 2개 공연장 / 2개 단체 – 3개 공연장/ 3개단체 – 5개 공연장)

• 인천 : 1개 공연장 / 1개 공연예술단체

• 경기 : 3개 공연장 / 3개 공연예술단체

(14개 공연장 / 27개 공연예술단체)

Ⅱ.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현안과 이슈

1.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현안

- 2009년도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시범실시되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을 2010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기존의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 지원금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완전 전환함.
-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 예술위와 협의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현실적인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광역시에서도 올해는 시범사업 수준으로 평가하고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음.
- 일부 지역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곳도 있으며, 추진은 하고 있으나 사업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기존의 지원제도와 차별화를 꾀하지 못한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지원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지역의 문제제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서울,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상주예술단체를 수용할만한 공연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2. 서울,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상주할 만한 전문 공연예술단체의 활동이 취약하다.
3.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양측 모두 상주단체 육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4.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체 예술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지원정책이라 지역의 준비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5. 한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너무 커서 지역에서 선정된 예술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

Ⅱ.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현안과 이슈

2. 실질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 공연장 기획. 운영인력의 비전문성
시설관리공단 등 공연장 운영조직이 공무원 중심의 비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공연기획, 홍보, 마케팅의 지원 기능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
=> 서울지역의 구단위 문화회관 중 상주단체 유치를 희망한 곳은 문화재단이 있는 지역(구)이거나, 관장이 공연기획, 홍보 분야의 전문적 역량을 갖고 있는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남구 등)
=> 지역 공연장의 가동률과 관람객 점유율 등이 현저하게 낮고 홍보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공연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상주단체로서의 이익이 크지 않다.

- 공연장 및 예술단체 모두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에 대한 이해부족
공연장 및 예술단체가 상주단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갑-을'관계로 변질되어 왜곡된 운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

- 공연레퍼토리를 가진 전문공연예술단체 부족
공연장 운영과 홍보에 도움이 될만한 유명 레파토리 공연을 보유한 공연전문단체가 거의 없다.
=> 현재의 지원예산 여건으로는 대규모 창작 공연물을 제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공연 레퍼토리의 공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지역 공연단체의 경우 기존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레퍼토리 시스템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 예술단체의 기획, 운영역량 부족
연간 1억원에 가까운 지원예산을 받아서 공연단체의 체질개선 및 레퍼토리 개발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기획, 운영 역량을 갖춘 예술단체가 부족하다.

Ⅱ.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현안과 이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단체 육성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의 역량강화와 체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연간 5천~1억5천만원에 달하는 지원예산의 운영역량 배양
  - 공연장의 기획, 홍보, 마케팅 역량과 공연단체의 전문적인 운영능력 제고
  -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

- **지역만의 고유한 공연 레퍼토리의 개발이 가능하다.**
  - 최소 2년간의 안정적 창작기반 확보를 통한 공연레퍼토리 개발과 보완이 가능
  - 지역민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참여를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스토리를 반영 기회 증대

- **공연장이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예술 창작.향유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 실질적인 상주단체의 활동은 공연장의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공연장을 만든다
  - 예술교육, 공연연습, 공연활동 등 공연장 H/W의 활용도 증진, 이용객 공간 이용률 증대
  - 새로운 공간습관, 공간이해도의 증진을 통해 공연장이 '문화시설'에서 진정한 '문화공간'화

- **민.관 협력시스템의 운영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민관 협력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 예술단체는 공연장의 행정운영, 관리,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연장은 민간 예술단체의 창작과정과 예술가(단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면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 기회 확대

- 지역협력사업 지원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 확산
  - 예술지원 4대원칙의 실현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속의 예술)을 위해 가장 적합한 지원제도로 지원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지원성과의 확산에 기여
  - 기본적인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지역별로 다양한 창의적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열린 지원제도(예술단체의 선정, 창작작품의 선정, 시민프로그램의 기획 등 주관처의 재량 폭이 넓음)

Ⅱ.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현안과 이슈

4.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한 방안



<사례> "서대문 문화회관 'A등급', 시설공단 운영 공연장 중 유일"

"열악한 여건 속 주민들 문화 질 향상에 큰 역할한 모범사례"
형무소역사관 배경 서대문 만의 연극 내년 5~6월 쯤 초연

(재)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상주 공연장-예술단체 매칭사업」평가에서 우수공연장으로 평가 받은 서대문문화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으로서는 유일하게 A등급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김영욱 관장은 『재정지원이 많은 다른 공연장들과는 달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것이 높이 평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극단 사다리움직임연구소와 협력을 맺고 1차년도동안 휴먼코메디, 어린이 창작연극 등 공연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연기아카데미, 영어 연극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서대문 문화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 소감을 전했다.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서대문문화회관과 상주예술단체인 극단 사다리움직임연구소 간의 우호적 협력과 노력의 결과로 협력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매우 컸다고 판단, 동 사업을 2차년도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의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서대문문화회관과 사다리움직임연구소의 협약사항의 이행이 잘 이뤄지고 있고, 연습실 제공과 행정업무능력, 인력편성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는 물론 전문예술단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며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문예회관의 열악한 여건과 환경에서도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려는 공연장과 우수예술단체가 결합돼 좋은 성과를 낸 모범사례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 협력사업 모범사례 선정, 인센티브 부여

문화회관 김 관장은 금번 매칭사업 모범사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앞으로의 2차년도 매칭사업에 더욱 중점을 두고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2차년도 사업 지원예산 9000만원에 우수공연장 인센티브 3000만원이 더해져 총 1억2000만원으로 매칭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문화회관은 2011년 6월말까지 「휴먼코메디」, 「추적100분(구 그놈이 그놈)」 등의 브랜드 레퍼토리 공연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극 캠프 개설, 인근 지역대학과 연계해 「지역 주민문화예술 창달과 거점 문화공간의 역할」을 주제로 워크샵도 개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서대문구의 문화·역사적 특수성을 살려 독립운동의 성지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배경으로 한 창작뮤지컬도 제작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관장은 『서대문구는 유수한 대학교들과 독립문, 형무소역사관 등 민주주의, 사학의 명문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상 극단인 사다리움직임연구소와 매칭사업을 시작하면서 서대문구와 걸 맞는 공연을 만들기로 했다. 2차년도에는 본격적인 가시화를 통해 내년 5~6월쯤에 초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총 사업비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구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서대문구만의 공연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 2010년 11월 08일 (월) 14:21 서대문 사람들 [제 497 호] 신진수 기자 -

Ⅲ.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방안

1. 성공적인 공연장-상주단체 윈윈(win-win)모델을 만들기 위한 방안

● 공연장의 여건에 맞는 공연단체의 선정
- 공연장의 입지적 조건, 시설여건, 주변환경, 이용시민들의 성향에 따른 공연장르 및 공연단체 선정 필요
-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주단체 선정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실시

● 상-하 /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호혜 협력적 관계 유지
-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관계는 지속하기 어려움
- 공연장에 대한 일방적 지원요청도 예술단체에 대한 일방적 공연요청도 무리
- 공연장이 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지원기관의 자세와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함

● 실질적 상주여건의 마련을 통한 공간 활성화 & 공연장 활성화
- 명목상의 상주단체는 지원금의 지원통로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함.
- 공연장 내에 사무실, 연습실, 시민교육공간 등을 마련하여 공간에 대한 친밀도를 증진
-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공연장, '시설'이 아닌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

● 공연장 운영, 지원 역량에 맞는 단계적인 상주단체 규모 확대
- 처음부터 규모가 크고 여러 개의 상주단체를 거느리고(?) 운영을 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 한 단체가 안정화 되고 나면 다시 다른 장르의 상주단체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
- 사업이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자세 필요.

● 관객개발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공동노력
- 상주단체에 대한 평가는 결국 '지역 주민', '공연장 이용객'들이 하게 됨.
- 공연단체의 입장에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의무방어전'으로 보는 것은 큰 문제.
- 우리 극단, 우리 무용단, 우리 교향악단이라는 친밀감, 호응도를 만들기 위한 가장좋은 방법이 시민참여 프로그램

Ⅲ.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방안

2. 우수 공연장 사례 인터뷰 (서대문 문화회관 김영욱 관장)

● 어떻게 상주예술단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 상주예술단체 사업 이전에는 서울시립극단이 서대문구민회관에 4년간 입주(?)해 있었다.
- 2009년 7월 서울시 문화재단 공고를 보고 공연장 선정에 신청을 하게 되어 10개 공연장이 선정되었다.
- 서울시에서는 공연장의 장르 우선순위 지정 후 공연예술단체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예술단체들이 기 선정된 공연장 우선순위를 (1,2,3순위) 정하게 한 후 매칭을 시켰다. 잘 조정이 안되는 단체들은 재단이 조정역할을 하였다.

● 서울시 내 10개 공연장 중 LG아트센터와 서대문 구민회관 만 공연단체가 하나인데?
- 처음부터 한 단체를 선정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 2-3개 단체를 수용할 수 있을만한 공간여유가 없다.

● 모든 구민회관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연장이 상주단체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 구민회관들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이다.
- 공연에 대한 전문적인 기획, 홍보, 마케팅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며, 상주단체를 수용해보겠다는 의지도 약한 것 같다.

● 공연단체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나?
- 지원조건에 따라 협약을 하고 그에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연간 창작기획공연 1작품, 레퍼토리 공연 1작품을 공연하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다리 움직임 연구소'가 연극놀이 및 어린이 연극교실 경험이 많아 호응이 높은 편이다.
- 공연 수익은 50:50으로 나누고 있고, 2011년에는 별도의 회관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기획공연을 공동 제작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Ⅲ.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방안

2. 우수 공연장 사례 인터뷰 (서대문 문화회관 김영욱 관장)

● 모든 상주단체 사업 공연장이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해야 서로 윈윈할 수 있을까?
- 공연장이 상주단체를 전속단체처럼 생각하고 상하관계로 접근하면 안된다.
-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 우리도 계약한 내용 이외에도 단체의 요구가 있으면 적극 협력하고자 했으며 가능한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단체 입장에서도 회관의 요청에 열린 자세로 임하게 된다.

● 공연작품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은?
- 모든 작품에 다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성인극은 관객들이 좀 부족하고 어린이극은 관객들이 꽉 차는 편이다.
- 회관 위치와 지역 특성, 회관 이용객 특성상으로 볼때 가족, 어린이 쪽의 작품에 대한 반응이 높다.

● 어려운 점, 사업에 개선 필요점이 있다면?
- 2년 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단체와 공연장이 안정적으로 상주단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 여건이 필요하다.

<시사점>

서울이라는 특수성 (충분한 지역 이용객, 선택가능한 많은 공연예술단체, 준비된 관객)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서대문 문화회관은 공연장 입지 여건은 열악하다. 외지 방문객들의 접근이 쉽지 않고 지역민들의 이용률은 높은편이다. (1일 1,000~1,500명의 상시 이용객 – 스포츠 시설, 문화센터, 공연장 합계)

김영욱 관장이 정동극장 마케팅 부장을 했던 공연마케팅 전문가로 공연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안, 공연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점은 사업운영에 큰 장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예술단체가 명목상 상주단체가 아니라 실제 사무실과 연습실을 상시 이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상주'를 하고 있는 것도 사업성과 창출에 중요한 요인이다.

무엇보다 공연장이 시혜적 자세와 상-하 관계로 예술단체를 대하지 않고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하는 자세로 사업을 풀어나가려는 자세와, 상주단체 사업이 공연장 발전과 지역내 공연장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배워야 할 점이다.

Ⅲ.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방안

3. 지역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가 위촉 평가지표 (예시)

구분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사업 기획	사업 이해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 추진 사업내용 및 퍼블릭 프로그램의 내용을 통해 파악 * 대표자 및 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인터뷰)
	사업 홍보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홍보 언론/문화계 관심유도를 위한 노력	* 공연장 인근 지역민, 지역시민들을 위한 홍보노력 * 상주단체 사업에 대한 언론과 문화계 관심유도를 위한 언론 보도, 홍보노력
	지원 효과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의 효과발생여부	* 상주단체 지원사업이 단체의 예술적 역량 강화 효과가 있는가? •상주단체 지원사업이 작품 창작력 제고, 창작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는가?
	연계 협력	공연장과의 긴밀한 연계사업 및 협력추진여부	* 공연장 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파악 - 직접 미팅 또는 예술단체 인터뷰를 통해. * 공연장의 기본사업과의 연계 협력 노력 및 추진실적 여부 파악 -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청취
	상시 사업	공연장 상주단체로서의 상설사업 추진여부	* 상주단체에 걸맞는 상설 사업 추진여부 * 연습, 워크숍, 아카데미 등 공연 및 발표회등을 제외한 상시 이용실태 파악

Ⅲ.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방안

3. 지역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가 위촉 평가지표 (예시)

구분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공연 프로 그램	우수성	선정단체의 역량 및 작품의 예술적 수월성	* 선정단체의 예술활동 실적 및 대표자 프로필, 단체 조직구성 파악 * 공연작품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예술적 수월성 파악
	프로그램 기획력	프로그램 기획력, 구성력 등	* 상주단체 공연사업으로 적절한 프로그램 선택이었는가? * 관객들의 반응이 적절한가? *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예술계를 선도할만한가?
	운영	공연 운영의 원활함	* 공연장 현장운영 및 대 고객 서비스 수준 파악 *지역민들의 감상수준을 고려한 배려 (인쇄물, 사전 안내 등) * 공연장 시설 이용의 만족도, 애로사항 등 청취
	만족도	참여자 만족도, 호응도	* 지역 관객들의 만족도 및 일반 관객 호응도 파악 * 공연자(출연자)들의 공연, 시설, 운영 만족도 파악

Ⅲ.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방안

3. 지역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가 위촉 평가지표 (예시)

구분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시민참여프로그램	기획 운영	프로그램 기획력 홍보 및 운영능력	* 프로그램의 기획력 및 구성 * 홍보>모집>운영>공연>평가 등 프로그램 운영능력 * 프로그램 실제 운영자 인터뷰
	소통과 참여	시민참여도 및 시민프로그램운영의 진정성	* 참가자 모집 방식 및 운영상황 파악 * 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참여인원 파악 * 참여 시민들의 만족도 및 호응도 인터뷰
	지속성, 평가환류	지속성 담보를 위한 노력	* 사업의 기록, 자료화 여부 * 참여자 대상 만족도 분석 및 자체평가 추진여부 파악 * 사업 지속을 위한 평가환류 계획 * 참여시민들의 참여 지속 및 커뮤니티화를 위한 계획 여부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예시>
- 어린이.청소년대상 연극교실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어린이, 주부 극단, 합창단 등 아마츄어 예술단체 육성(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시민후원단 조직, 관객조직 구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 아마츄어 동아리, 아마츄어 예술단체에 대한 코칭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아마츄어 동아리, 시민 예술단체들의 발표회 지도. 발표회 운영 지원.
- 연습실 탐방, 백스테이지 견학을 포함한 예술감상 안목을 높이기 위한 시민대상 관극 워크숍 등

Ⅱ.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현안과 이슈

<참고자료>
상주단체. 전속단체. 입주단체 비교

1. 공연장 상주단체

- 특정 공연예술단체가 특정 공간을 제공해주는 공연장과 상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공연장과 공연장 부속공간들에서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창작작업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상주단체는 공연장에 종속되지 않고 계약에 의해 관계가 정립되며 별도의 독립된 조직과 직제 및 예산을 운영한다. 공연장과는 위계상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
  (ex> 예술의전당과 국립발레단)

2. 국공립 공연장의 전속공연단체

- 일반적으로 국공립 공연장에 공연예술단체가 전속단체로 조직이나 직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채로 활동하는 경우로 공연장과 대등한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위계관계로 공연장의 대표자 및 운영부서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게됨.
- 단원의 신분은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 있으며, 전속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공연장 전체 운영비 예산에 포함됨.
- 재정자립도, 자생력 확보라는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흐름과 경제논리에 따라서 국공립 공연장의 전속단체가 축소되거나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는 상황. (국립극장의 전속공연단체들 중 50%는 별도 법인으로 독립되어 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 입주)

3. 입주단체

- 공연장의 여유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연예술단체로 극장과 입주단체와의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조건이 없음.

토론문

모상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과장)

지역문화의 특성에 맞는 지역협력형사업을 위한 제안
– 광주의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시작하며

오늘 토론회는 2009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서 진행된 지역협력형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연착륙을 위한 점검과 대안제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토론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와 특수한 이야기가 함께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론과 실천의 문제처럼 지향과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정한다면, 저에게 주어진 미션은 아마도 현재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광주에서 2010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담당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동안의 과정과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에 이야기의 근저에 흐르는 일반론적인 고민지점으로 '지역문화(예술)'이 가지는 패러다임적 변화입니다. 문화에서 이 개념의 논의는 그리 오래지 않는데, 2001년 '지역문화의해' 사업이 있었고 그 후 '지역문화네트워크' 같은 민간조직이 만들어지는 한편 문화부 내에 '지역문화과'가 신설되고 예술위에 '지역문화소위원회'가 만들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단위에서 보더라도 '지역문화'가 공식화 된 것은 『창의한국』(2004)이 처음이었습니다. 아직 정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층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문화의 특성에 맞는 사업의 방향 설정

먼저 광주의 2010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현황은 3월 말부터 접수를 시작으로 사업설명회를 거쳐 총 20개 사업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14명이 참여한 심사는 서류심사와 인터뷰심사를 병행, 점수제로 진행하였고 점수등위에 따라 총 6개 사업대상을 선정, 차등지원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의 정책적 방향에 따른 '지역문화(특성화, 구체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2010년 신규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케이스의 발굴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어차피 중앙에서 오는 사업의 지침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의 방향이지, 현실의 구체성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공연장과 예술단체가 결합되어 진행되는 이번 경우는 사업의 성격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기에, 일단 우리지역에 맞는 이러한 케이스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 판단했습니다. 현실의 분석은 '일반'으로 가능 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구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는 6개의 사업들의 성격을 아래의 [표]와 같은 특징들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사업선정과 관련해 담당자의 역할이 의외로 크지 않습니다.) 분류의 근거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단체의 특징들을 감안한 판단으로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고민을 나누었고 특징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단체명	퍼블릭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특징
광주현대무용단 뿌리한국무용단	선생님 예술과 만나요!	孝-연(蓮)의 노래	지역 이슈 결합
한소리회	한마음여성합창단	3시의 한소리 데이트	공간 위치 결합
극단푸른연극마을	주부연극동아리 [YOU'S]	4개의 대표작 ('어미' 등) 공연	우수레퍼토리공연
박준희무용단	시민참여프로그램	댄스컬 '청춘불패'	대규모창작기획공연
극단진달래피네	나도 할 수 있어!	세익스피어 프리즘	지역 소극장 활성화
퓨전국악아이리아	일상을 두드리다! [난타]	국악 뮤지컬 '국악은 내친구'	지역 특성 결합
	일고수 이명창		

〈2010년 광주지역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대상, 프로그램, 특징〉

지역문화의 특성에 맞는 사업의 내용 고민

이 사업의 목적은 '세 마리 토끼(공연장, 예술단체, 지역주민)'를 잡기 위한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사업들의 계획서를 보면 대부분이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주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컨설턴트를 위촉하여 사업계획과 진행과정들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체들과의 여러 차례 만남(회의, 간담회 등)를 통해 당초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 논의되는 '문화생태계' 개념의 소비자의 창조적인 변용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시민(지역주민)을 더 이상 관람하는 대상으로서 수동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닌, 봄과 동시에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퍼블릭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했고, 당초 사업계획에 빠져 있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상황에 맞게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물은 〈아래〉와 같이 사업주체별 1개 이상의 퍼블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결과로 표현되었습니다.

단체명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광주현대무용단 뿌리한국무용단	선생님 예술과 만나요!	남구지역 교육시설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용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및 워크숍 진행
한소리회	한마음여성합창단	공모를 통해 단원들을 모집하고 정기적으로 합창곡을 연습하여 12월 4일 공연
극단푸른연극마을	주부연극동아리 [YOU'S]	공모를 통해 주부들을 모집하고 작품 창작 및 연습을 통해 12월 1일 공연
박준희무용단	시민참여프로그램	다양한 장르의 무용을 빛고을시민문화관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 진행
극단진달래피네	나도 할 수 있어!	공모를 통해 단원들을 모집하여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11월 5일 진행
퓨전국악아이리아	일상을 두드리다 [난타]	공모를 통해 단원을 모집하여 난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11월 27일 발표
	일고수 이명창	소리북 및 판소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공모로 모집하여 전문 고수 교육 및 발표

〈2010년 광주지역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퍼블릭프로그램 내용〉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처음으로 언급할 내용은 공연장과 단체의 효과적인 협업과 합리적인 조율을 통한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올해에는 각 주체들의 정확한 자기목적성의 애매함으로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예산의 20%의 사용을 들 수 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해프닝(당연하게 20%는 공연장이 알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이 진행되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로 이 사업의 성과와 관련된 공연장의 인식수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해야 하지?', '정말, 일만 늘었네.' '그럼, 우리한테 오는 것은?' 등과 같

이 인식의 현실은 공연장의 브랜드 가치 상승이나 이미지 제고 등의 무형의 자산들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계산법에 의한 인식을 우선하는 현상 등의 원인으로 공연장 이용의 어려움(냉방, 시스템 활용 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특수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일반론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 결과들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이것을 하나의 미션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예술단체 및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광주에서 공연장의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유스퀘어문화관(동산아트홀과 금호아트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산아트홀에는 '극단푸른연극마을', 금호아트홀에는 '한소리회'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두 단체의 공연실적(관객 집객)이 좋다보니 공연장 측 윗선에서 내년 기획공연 비용을 2배 이상 증액하여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당 실무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의식의 변화 수준은 아니지만 '어!'라는 의식변화의 전(前)단계까지는 결과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언급할 내용들은 퍼블릭 프로그램의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 부분을 언급하는 문제로서 각 사업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진화와 자신들의 삶의 구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퍼블릭 프로그램들의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시행되는 많은 정책들의 한계는 이미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책적인 차원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일정한 기간의 경과'는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이용관(한국예술경영연구소장)님의 중앙과 지역예술의 비교의 글을 마지막으로 토론문을 마칩니다.

"지역예술은 '중앙'의 그것과 비교하여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선 생산구조에서 중앙은 개인이나 컴퍼니가 생산의 중심이라면 지역은 커뮤니티의 성격이 강하다. 소통하는 방식도 중앙은 마케팅이 주요한 수단이라면 지역은 직접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저쪽이 거래라면, 이쪽은 공유로 볼 수도 있고, 중앙의 그것이 상품이라면 지역의 예술은 '비영리적 자원'이기도 하다."_(예술경영 웹진, "예술경영, 지역을 사고思考하다", '⑤ 지역의 자기진화, 예술경영의 자기진화' 중에서)

토론문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본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떠오르는 아래 몇 가지 질문과 제안으로 토론을 갈음함.

1. 본 사업이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적합한 사업인가?

- 중앙의 예술위원회는 선택집중 지원, 각 시도 지역은 다양한 예술생태계 육성을 위한 소액다건 지원이라는 지역협력형 사업의 기본 구조에도 걸맞지 않고,
- 각 지역의 현실에 맞춘 준비가 부족하여, 중앙정부의 파이롯트 정책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함.
- 특히, 지나치게 고액 예산이 편성되는 본 사업을 1:1 매칭으로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중앙 매칭금액 뿐만아니라 시도별 자체 사업예산 실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타 지원 프로그램에 적절한 규모의 예산편성이 어려운 문제 발생함.
- 이에 따라 형평성을 감안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중앙과 지역의 예산 축소에 따른 이중 충격이 가해짐

〈서울문화재단 2011년 예산 편성 사례〉

구분	2010			2011			총액 증감
	합계	중앙기금	지자체예산	합계	중앙기금	지자체예산	
예술지원사업 총액	15,541	4,749	9,262	11,127	2,589	4,188	-28%
상주단체육성지원	4,116	2,058	2,058	1,100	550	550	-73%

⇒ 의견 1 : 위탁사업으로 전환

- 중앙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 축소 충격 방지
- 본 사업수행의 의지와 여건이 확보된 지역에만 위탁 시행

〈참조〉

: 〈중앙으로서의 서울〉과 〈지역으로서의 서울〉인 서울지역 예술생태계 육성 역할 분담안〉

– 우리나라 예술생태계의 60~70%가 집중해 있는 서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지원은 문예위가 담당하고, 서울문화재단은 창작공간, 예술지원박람회 등을 활용한 간접지원으로 자생력 강화에 집중. 서울문화재단은 지역문화재단의 고유 목적인 시민문화진흥사업에 집중

지역 특성	사업 분야	세부 프로그램	역할분담(안)
지역으로서의 서울	문화참여 확대	–시민예술활동 지원 –시민축제 지원	서울문화재단이 지역문화재단으로서 미션으로서 집중 수행 *우수한 예술콘텐츠 풀 확보를 위한 평가 및 인증(SFAC Choice) 역량 강화
	문화향수 확대	–자치구문화공간지원 –자치구네트워크지원	
	문화복지 제고	–예술로희망드림프로젝트	
	서울대표 예술콘텐츠 육성	–서울예술축제지원	
		–유망예술가육성지원(NArT)	
중앙으로서의 서울	서울예술생태계 자생력 강화	–창작활성화지원	예술위원회 기금 사업 수혜 *재단은 간접지원을 통한 창작활성화에 집중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중앙정부 시책사업을 필요시 재단에 위탁

2. 지원보다 컨설팅형 관리가 중요한데, 누군가가 통합하여 담당해야 하지 않는가?

– 지원 성과의 모니터링 보다 단체와 극장의 변화유도를 위해 “컨설팅형 평가”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어 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통한 상세한 현장 모니터링과 중간 성과보고 및 1년차 평가보고회로 갈음했음.

– 예술지원사업 예산이 축소됨과 동시에 심사, 평가 등 운영경비의 감축요구가 강함. 이에 따라 본 사업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사업관리비 편성이 어려움

– 정책성과 수렴 및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서도 각 지역을 통합한 성과평가가 필요할 것임.

⇒ 의견 2 : <u>예술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컨설팅형 성과평가” 진행 담당</u>

– 평가지표 개발하였던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위탁 시행 가능

–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선정단체 대상 워크숍 등도 통합 시행

3.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가?

- 예술단체들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 제공의 효과는 분명히 감지됨
- 반면, 지원이 종료되었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 강화를 지향했던 사업의 성과나 단체들의 자발적인 변화 노력은 아직까지 별로 크지 않아 보임

〈참조〉

2009년 선정 23개 단체 및 10개 극장의 정산 보고 시 교육 참가 이력을 제출토록 하였던 바,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총 7개 단체/극장이었고, 나머지는 평균 2~3회 정도 교육 참가 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의 성과 도출을 위해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3~5년 연속지원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 2년 지원으로 종료하고 2011년 신규 선정지원 예산은 편성하지 못함

항목		2011년 예산요구안	조정결과
세부 내역	-09년 선정건 3년차 지원	10억 (10건 내외)	-
	-10년 선정건 2년차 지원	10억 (12건)	10억 (12건)
	-11년 신규 선정 지원	2억 (2건)	-
총계		24억 (운영비 포함)	11억 (운영비 포함)

⇒ 의견 3 : 예술단체들 대상 교육 강화

- 정산 보고시 교육 성과 제출 의무사항 강화
- 통합 교육프로그램 확대 개최

⇒ 의견 4 : 극장의 전문성 강화는 극장 자체의 몫이므로, 선정 시 엄격 심사

- 본 지원제도를 불순하게 활용하거나 역량이 미흡 시 철저히 선정 배제
  (정치적 고려, 단체와의 관계로 인한 지원 철저히 배제 필요)

⇒ 의견 5 : 2010년 지역협력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2011년 상주단체 사업예산으로 활용토록 허용

- 재단 자체 예산 잔액 세계잉여금은 예술지원사업으로 추경 편성 예정

4. 추후 감사의 후폭풍은 누가 맞을 것인가?

- 현재 국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하면 상주단체 지원사업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위법 사례들이 존재함 (경상비 / 시설비 지원, 공공 극장에 대한 지원 등)

⇒ 의견 : 향후 유사한 기획지원사업을 위해 보조금 관리 규정 현실화

Ⅲ. 세션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성공전략

발제문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성공전략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 공연기획팀장)

1. 상주단체 개념

○ 상주단체는 입주단체나 전속단체와는 일정정도 차이가 있음
○ 연극 혹은 관현악, 무용 등의 공연 단체가 어떤 특정 극장에 상주하면서 극장으로부터 공간지원 등을 받고,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하는 것을 의미
○ 단순히 공연장의 공간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상주하는 입주단체나, 극장 소속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전속단체와는 다름
▶ 지역의 문화공간에 예술단체가 상주하면서 서로 예술적 활동에 협력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2. 을숙도문화회관 및 상주단체

① 을숙도문화회관

○ 개관 : 2002.10.5
○ 기구 및 인력 : 1관장 3담당(관리, 공연기획, 무대예술), 18명
○ 시설현황
  – 대공연장 708석, 소공연장 242석, 전시실 3실, 문화강좌실 4실,
    회의실 1실, 연습실 5실, 야외놀이마당 등
○ 2009년 운영실적 : 288건, 616일, 657회
  – 대공연장(68 / 113 / 148), 소공연장(134 / 139 / 145)
  – 전시실(21 / 110 / 110), 기타(65 / 254 / 254)
○ 2010년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주관 '문예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 수상

– 연간 80여회 기획공연 및 7회의 기획전시를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

② 상주단체

○ 단체명 : 뉴프라임 오케스트라
○ 지휘자 : 임준오
– 동의대 음악학과 졸업
– 러시아 마그니타 글링카 쿡립음악원 오페라 심포니 지휘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단원 : 50여명으로 구성
○ 창단 : 2006.8월
○ 운영현황 :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 2007년 : 부산은행 개관음악회, 대종상 개막식, 한국·베트남 수교 15주년 기념음악회
– 2008년 : 한국오페라 60주년 기념공연, 오페라 돈죠반니 등
– 2009년 : 오페라 투란도트,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음악회 등

3. 2010년 상주단체 운영결과 – 을숙도문화회관을 중심으로

① 단원들의 소속감 향상 및 예술단체 운영의 안정성 확보

○ 대부분의 단원들은 상주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있으며, 예술단체 운영에 있어서도 사무실 및 연습공간의 지속적 확보에 따른 안정성 확보
○ 을숙도문화회관의 경우 연간 30여회에 이르는 공연 프로그램을 확정함으로 예술단체에게는 연주기회가 부 여됨으로 단체의 운영 및 결속력 강화에 기여

② 지역 예술인의 창작 발표 기회 제공 등 지역문화 활성화 계기마련

○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 관현악곡을 자체 경비로 발표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
○ 상주단체이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의 창작 발표 기회도 생기는 것이며, 공연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

③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공연을 통한 문화향수 기회증대

○ 특히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공연할려고 하면 많은 비용 때문에 어렵지만 상주단체를 확보함에 따라 다양한 공연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됨
○ 현악합주, 금관5중주, 타악기, 풀오케스트라, 다양한 악기와의 협연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공연관람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고 문화향수 기회 제공

④ 공연장의 부족한 레퍼토리를 채워주는 소프트웨어 확충 기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관공연으로는 한계가 있는 레퍼토리를 상주단체가 우수한 공연물로 보완해 주는 효과
○ 특히 을숙도문화회관의 경우는 연간 약 30여회의 공연을 추진함으로 많은 효과를 거양

⑤ 수평적 관계 유지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 공연장과 예술단체는 상호간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에 의한 관계임
○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예술단체에 비해 1개의 공연장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종속적 관계로 흐를 가능성 상존
○ 공연장에서 무리한 요구나 실적을 요구할 경우에 예술단체로서는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⑥ 의무방어전의 위험내재

○ 연간 몇 회의 공연을 계약에 의해 개최하게 됨에 따라 예술단체는 의무적이고 소극적인 공연을 추진할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음
○ 상주단체에 대한 연습실, 사무실 제공 등 공연장의 의무와 공연개최에 따른 예술단체의 의무가 형식적이거나 질적인 부분에 있어 미흡할 수 있는 가능성

4. 문제점

① 지원금이 적고 일률적 분배

○ 부산의 경우 최고 지원액이 1개 단체당 1억 340만원임
○ 공연회수, 지역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 지원이 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분배됨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 대두

- A 오케스트라 5회, B 오케스트라 28회
- 문화적으로 열악한 지역환경에 대한 고려 없음

② 단기적 지원에 따른 안정성 결여

○ 1년간 지원한 후 실적에 따라 2년차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2년차에 지원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단체 운영의 안정성 문제 대두
○ 2년차에 지원이 된다하더라도 지원액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음
○ 최소 3~5년 정도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공연장간의 차별화 및 예술단체 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임

③ 상주단체 운영을 위한 메뉴얼, 운영지침 등의 부재

○ 상주단체 운영을 위한 아무런 지침이 없음
○ 단원들의 출근과 관련한 복무, 소속에 대한 의무, 예산지원에 대한 집행방법, 연간 프로그램의 내용과 공연회수 등에 대한 세부 매뉴얼이 없음
○ 상주단체로 지정된 후 공연장과 운영에 따른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

④ 너무 많은 공연실적을 원하면 예술단체에 부담을 주게 된다

○ 공연실적이 너무 적으면 공연장의 예술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
○ 공연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지원은 부족한 반면 오히려 공연을 위해 객원단원을 고용하는 비용의 추가발생으로 인해 예술단체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게됨
  - 을숙도문화회관의 경우 1회당 약 286만원 정도(8천만원, 28회 공연)

⑤ 공연장별 1~2개 상주단체 운영에 따른 장르의 편향성

○ 공연장별로 1~2개의 상주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상주단체의 장르에 예속
○ 또한 각 예술단체들이 공연장과 긴밀한 협조와 적합한 환경에 맞아서 상주단체가 되기보다는 급작스럽게 조합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주단체 지정이후 운영 및 연습에 많은 애로 발생(연습실 또는 사무실 환경 열악 등)

⑥ 실적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 향후 상주단체 운영 실적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부족
○ 실적평가를 위한 상세한 평가지침과 평가자의 공정성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

5.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성공전략

① 통합적 상주단체 제도

○ 문화재단 등에서 상주단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각 공연장은 다양한 예술단체의 공연을 연간 몇 회씩 개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공연장과 예술단체간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특정 장르에 한정되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수하기 원하는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됨
○ 자체 공연장 60%, 지역 순회공연 20%, 타 공연장 20% 정도의 비율로 운영

② 세부적인 운영 매뉴얼 작성

○ 상주단체 지정 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공연장과 상주단체간의 역할과 업무를 분명히 함으로 향후 운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 가능
○ 을숙도문화회관의 경우
  – 협약기간, 지원금의 용도, 상호간의 역할 및 업무분담,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추진사항, 연간 공연 프로그램 내용 등을 담은 업무지침 자체마련
○ 예술단체의 단원들도 소속감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공연장에서도 연간 프로그램 등을 확정함으로 안정적인 공연 진행이 가능

③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적 한계성 탈피

○ 상주단체 제도가 지역 공연장의 부족한 소프트웨어를 보완하는 역할에 무게
○ 따라서 자체공연장 내의 공연만으로 지역적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상주단체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창작 작품을 제작지원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을숙도문화회관의 경우
  – 지역 작곡가의 창작 관현악곡(10분 정도)을 매월 2편씩 발굴하여 연주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 〈국립 거리극제작소, 국립 거리예술센터, 파리시립 예술제작소, 파리시립 문화센터〉 등 대부분의 기관들이 상주단체의 창작 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작 완료된 작품은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마케팅 하는 전략을 쓰고 있음
- 즉, 단체의 기존 작품을 자체 공연장내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여 전국적 또는 국제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시스템

④ 지원은 하되 간섭은 없다 – 철저한 팔길이 원칙 고수

○ 예술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연장과 상주단체에 최대한 자율성 보장
○ 프랑스의 경우
- 대부분의 문화예술 기관의 종사자는 문화예술 전문인으로 계약직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정치적 또는 행정적 간섭은 철저히 배제
- 상주단체 지정 및 지원에 따른 예술감독의 의견과 결정에 대해 절대적으로 존중
- 국비, 시비, 구비 등 예산을 지원하되 예술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⑤ 지역과 소통하는 밀착형 상주단체

○ 대부분의 상주단체가 자체 공연장 내에서 공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주단체의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고 있음
○ 그러나 상주단체의 공연이 일반적인 대관공연 등과 특별한 차별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마련이 필요
○ 타 공연물과 특별한 차별성과 독창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지역 공연장의 본질적 미션을 수행해야 함
-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순회공연을 통해 문화의 저변확대
- 청소년과 일반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또는 창작곡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
- 평소 하기 어려운 작품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여 발표 등

○ 프랑스의 경우
- 〈파리시립 문화센터, Maison des Metallos〉 의 경우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사회적 이슈 등 문화적 소통에 기획공연, 전시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음
- 〈국립 거리극제작소, 국립거리예술센터, 파리시립 예술제작소〉 등의 경우는 단체의 창작 제작 지원에 많은 예산과 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⑥ 공연장별 멀티 상주단체 운영

○ 서울의 경우는 1개 공연장에 2~3개의 상주단체가 상주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는 대부분 1개의 상주단체로 운영하고 있음
○ 오케스트라의 경우 일주일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
○ 또한 오케스트라 연습실은 예술단체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
○ 1개 연습실도 시간 조절을 하게 되면, 2~3개의 오케스트라 연습 사용가능
○ 따라서 극장별 상주단체를 2~3개 이상으로 늘이게 되면 공연장의 콘텐츠도 풍부해지고, 상주단체도 연습실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연습과 단체 운영가능
○ 프랑스의 경우
  – 〈파리시립 예술제작소, Le 104〉 의 경우 7개의 단체가 상주하면서 작품제작 활동
  – 단, 단체 상주기간은 3개월 정도로 짧으며, 연간 30여개 단체가 작품 제작 활동을 하고 있음

⑦ 동등한 계약관계에 의한 상주단체 제도 정착

○ 상주단체 제도의 큰 목적중의 하나가 열악한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
○ 공연장과 상주단체간의 불평등 계약이 아닌 대등한 관계유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상주단체의 예술성과 극장경영의 성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협력적이고 세세한 권리의무 내용의 명문화가 필요

⑧ 예산지원 기준 및 평가시스템

○ 단체별 예산지원 시스템에서 다양한 기준에 따른 예산지원 시스템 전환
  – 공연회수, 지역적 특성, 공연결과에 따른 성과, 공연내용 등을 감안한 예산지원
  – 공연장에 포괄적으로 예산지원 후 공연장에서 상주단체 지정 및 지원하는 방안
○ 공연장과 상주단체간의 파트너적인 협력관계에 따라 예산지원 및 평가실시
  – 을숙도문화회관의 경우 4년간 협력적인 관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상주단체 지정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할 경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발생 가능성

토론문

양종남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제도의 성과와 과제

–을숙도문화회관 사례 및 과천시민회관 사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공연시설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 국가는 국립예술단체를 설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관련 조례를 통해 시(도)립 예술단체[1]를 설립하고 공공공연장에 전속 혹은 입주단체화 했다. 덧붙여 10여 년 전부터 일부 공공 공연장에서 자발적으로 공연장의 상주단체 사례[2]가 등장하였고, 최근에 공공재원이 투입되면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이는 국내 공연장들이 예술가나 예술단체에게 소극적인 자세로 시스템 개방을 시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적 개입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의 적극적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보인다.

앞서 발제문을 통해 알수 있듯이, 을숙도문화회관은 공공기금을 기반으로 뉴 프라임 오케스트라에게 안정적인 공연 창작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 결과 다양하고 많은 횟수의 공연 레퍼토리가 지역 관객을 만나게 되고, 공연장은 지역 문화시설로써 공공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원제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하구청이 직영 운영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을숙도문화회관의 한계[3] 속에서 공연장 가동률 및 뉴프라임 오케스트라의 연간 30여회의 다양한 공연실적은 이를 뒷받침 해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공공지원 및 공연장의 기획공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뉴프라임 오케스트라의 연간 공연횟수는 예술단체의 장기적인 성장과 양질의 공연을 기대하는 관객입장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1회 공연에 소요되는 예산규모와 공연 레퍼토리의 질이 반드시 비례한

---

1) 경기도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31개 시군구 중 19개 시에서 공립예술단을 보유하고 있다.(2009, 경기문화행정백서)

2) 경기도의 경우 2000년부터 군포문화예술회관에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상주하였고, 2002년~2003년에 걸쳐 과천시민회관에 서울발레시어터와 극단 모시는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상주해 현재까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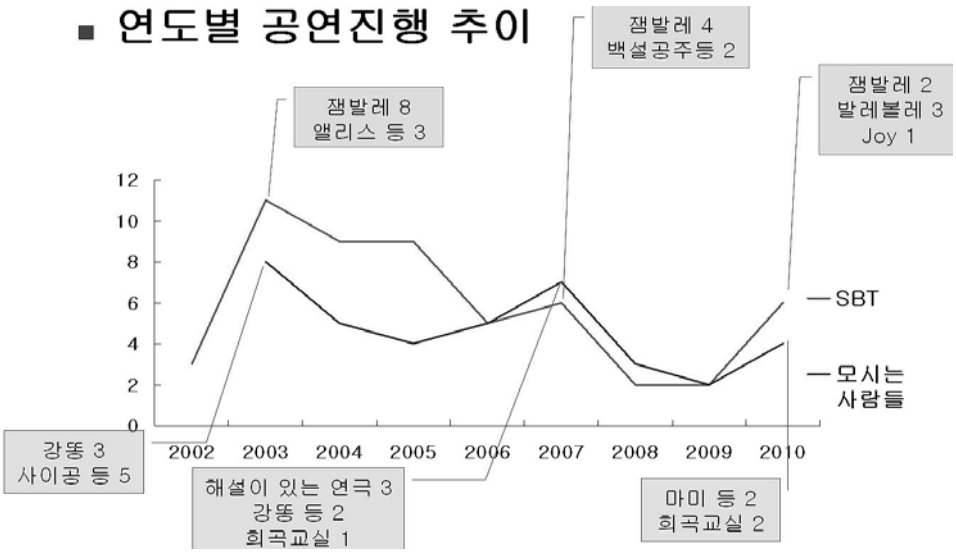
3)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영운영하는 공연장의 경우 운영 전문성 결여, 사업추진 의욕결여, 경직된 예산회계제도, 고객서비스 미흡 등의 사업운영에 많은 한계점을 갖게 된다.(2008, 문예회관 운영의 기초 p30)

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케스트라와 같이 대규모의 인원이 투입되어야 공연이 완성되는 장르는 타 장르에 비해 예산 부족이 공연 퀄리티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주공연장 이외의 곳에서 진행되는 연주횟수 등을 고려해 본다면 연습시간 확보, 우수한 연주인력 확보들을 위한 노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과천시민회관에 2002~2003년부터 현재까지 상주하고 있는 서울발레시어터와 극단모시는사람들의 약 10년간의 연도별 공연진행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4]과 같은데, 아래 그래프의 공연 횟수(공연일수를 의미하진 않는다)를 통해 최초 공연장에 상주하여 의욕적으로 공연을 올린 2003년 이후 2009년 까지 꾸준히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주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피로도(fatigability)가 축적되게 되고, 이에 따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바로미터인 공연횟수 감소로 전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2009~2010년에 걸쳐 각각 경기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이 시작되면서 공연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는 점은 상주기간, 공연예산, 피로도, 공연횟수 등의 상관관계를 증명해 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5]

〈그림 : 과천시민회관 상주예술단체 연도별 공연진행추이〉



4) 과천시민회관에 상주단체들의 약 10년간의 공연횟수를 정리해 보았다.(자료제공 : 과천시민회관, 서울발레시어터, 극단모시는사람들)

5) 서울발레시어터의 경우 과천시민회관과 함께 단체 레퍼토리 구축을 위해 '모던프로젝트' 등과 같은 신작 제작 시리즈를 꾸준히 기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미있는 발레', '찾아가는 발레교실 발레볼레' 등의 관객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주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쉽지 않은 공연시장의 냉엄한 현실을 피해가기 힘든데, 최근 발전방향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목표의 재설정, 공동제작,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을숙도문화회관과 뉴프라임 오케스트라의 상주단체 운영사례 발제는, 지원 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본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 규모에 비해 공연장활성화, 예술창작 여건 조성,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확대, 예술인(단체)을 위한 복지 등 너무도 다양한 사업목표를 달성해야 함을 보여준다.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과 한계 또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을숙도의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 전체 공연시장 안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과천시민회관에 상주하는 서울발레시어터는 과천지역에 10년째 상주하면서 '서울'이라는 수식어가 가져오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발레시어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군포시문화예술회관에 10년 넘게 상주하고 있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상주 공연의 경우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를 사용하고 이외 공연에서는 지역명을 뺀 정식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공연장에 상주하고 있는 예술단체가 지역에서 숨죽이고 공연 횟수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지속가능함을 위해 공연시장에서 포지셔닝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처하는 예술단체의 포지셔닝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여지며, 뉴프라임 오케스트라 사례에도 적용할만한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목적성 사업인 공연장 상주단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지원기관, 공연장, 예술단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공연장은 단순하게 예술단체에게 연습공간, 사무실, 공연장을 임대해주는 것을 넘어서 예술작품이 만들어 지는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공연장은 예술단체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 관객 개발, 기금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예술단체와 성장을 함께해 나아가야 한다. 덧붙여, 예술단체의 공연을 양적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측면에서 평가하고 단체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해줘야 한다. 이를 통해 공연장은 중장기적인 관객개발 효과 및 공연장의 예술적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예술단체는 공연장과 함께 본연의 역할인 우수한 공연작품 제작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작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공연장을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술단체는 단기적으로는 공연장에게 관객 개발 성과를 돌려 주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연장이 지역 문화예술의 상징성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셋째, 지원기관은 우수한 공연장 상주단체 사례의 경우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하고,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다양한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예컨대, 현실적인 물리적 상주가 어려울 경우 공동제작 등의 비 물리적 상주형태도 지원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지원기관은 지원대상의 선정과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뿐만 아니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컨설팅, 세미나, 워크숍 등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지원방식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연장과 예술단체 그리고 지원기관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방법에 대해 합의 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토론문

김영욱 (서대문문화회관 관장)

1. 상주공연장-상주예술단체 매칭사업의 필요성

○ 자생력 기반이 취약한 지역 공공 문화시설에 대한 자립기반 가능
○ 우수 예술단체 및 유망 예술단체에 대한 중장기적 인적 물적 지원 확보
○ 공연장- 예술단체 간 협력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상호 동반 상승효과 창출
○ 양자간 매칭을 통한 지역협력형 사업의 정착으로 시민 문화향수권역 확대

2. 서대문문화회관 및 상주예술단체

① 서대문문화회관

○ 개관 : 1993. 10
○ 시설현황
  - 대극장 589석, 소극장 200석, 기획전시실 1실
○ 운영인력 : 20명
○ 2009년 서울시 투자기관 창의경영 우수상 수상
○ 상주공연장-예술단체 매칭사업 운영실적(1차년도) :
  - 3개 공연작품 12회, 예술교육 프로그램 51회 등

② 현재 상주예술단체

○ 단체명 : 극단 사다리움직임연구소
○ 단체장 : 임 도 완(서울예대 교수 및 연극연출가)
○ 단원 : 상주인원 15명 내외 (객원 제외)
○ 상주기간 : 2009년 10월~현재
○ 창단연도 : 1998년
○ 주요작품 : 보이첵, 추적 100분, 휴먼코메디, 작은나무이야기, 장님들 등

③ 기타사항

○ 과거 상주예술단체 : 서울시극단 (예술감독 김석만)
○ 상주기간 : 2005년 7월~2009년 6월
○ 운영내용 : 상주공간(연습실,사무실,단장실,공연장) 제공 및
  공동기획공연 및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공연 등

3. 서대문문화회관 상주예술단체 운영 중간성과

① 공연장 – 지역 문화거점공간으로서의 역량 제고

○ 창작활동 기반 및 공연제작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문예회관에 우수 연극단체를 유치 운영함으로써 안정적 운영 레퍼토리 확보

○ 기존 우수 레퍼토리 공연 외에 창작 인큐베이터로서의 물적 인적 자원 확보를 통해 우수 작품의 산실 역할 증대

○ 예술단체의 지역 현지화 전략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작품 공연 및 창작작품으로 주민 호응 및 문화향수층 증대

② 예술단체 – 안정된 창작활동 기반 확보

○ 상주공연장과의 협력 파트너쉽을 통한 창작활동 거점(연습실, 사무실, 음향실, 공연장) 확보로 인해 기존 레퍼토리 수준 상승 및 신규 창작활동 수월

○ 운영재원 유입으로 사무직원(홍보, 마케팅 등) 채용 운영 등 창작활동 전념 여건 제고

○ 레퍼토리 및 창작작품 발표 공간의 홈무대 확보를 통한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쉽으로 관객개발 용이

③ 서대문문화회관 – 상주예술단체(사다리움직임연구소) 매칭 프로그램 운영 현황

1차년도 공연 2건(8회) 교육 2건(51회)	상주예술단체육성 지원사업 웃음명품극 '휴먼코메디'	1.22~23(3회)	레퍼토리 연극
	Only-one창작뮤지컬 '작은나무 이야기'	5.3~5.5(5회)	뮤지컬 (창작초연)
	어린이 영어연극 만들기	1.13~4.2(24회)	예술교육 (어린이)
	청소년연기 아카데미	1.12~5.9(27회)	예술교육 (청소년)
2차년도 공연 3건(11회) 교육 1건 (4회) 세미나 (1건)	상주예술단체육성 지원 사업 래퍼토리공연 '추적100분'	10. 29~10. 30 (3회)	레퍼토리 연극
	상주예술단체육성 지원사업 웃음명품극 '휴먼코메디'	2011. 2월(4회) 공연계획	레퍼토리 연극
	상주예술단체육성 지원사업 Only-one창작연극 '보따리'	2011. 3월~4월(4회) 공연계획	뮤지컬 (창작초연)
	상주예술단체육성 지원사업 '서대문-사움연 마스터클래스'	2011. 1월~3월 (4회)	예술교육
	상주예술단체육성 지원사업 학술심포지움 세미나	2011. 4월~5월	학술 세미나

4. 문제점

① 부족한 지원금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문화 특성화 정착 한계

- ○ 연간 100,000,000원 내외의 재원으로 레퍼토리 작품의 수준상승과 지역특성에 맞는 창작작품 제작에 한계
- ○ 보다 다양한 창작 레퍼토리 개발과 폭넓은 관객개발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지원 예산 부족으로 지역적 차별화에 한계

② 단기 계약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어려움

- ○ 2년 단기 운영계약으로 인한 공연장 및 예술단체의 지속적 파트너쉽 형성 한계 및 계약 만료 이후 양자간 불안정 심리 대두로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에 한계 노출
- ○ 운영 계약기간 이후 공연장-예술단체간의 협력 파트너쉽 해체 가능성으로 지역 문화거점의 역할 해체 우려
- ○ 서울지역의 경우 10개 공연장-23개 예술단체 매칭으로 1공연장-1예술단체의 집중도 하락에서 오는 양자간 불협화음과 시행착오 노정

5. 개선 및 발전 방향

- ○ 현재 일률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2년의 운영 계약기간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매칭 모델의 경우 연장 및 차등계약 방법 고려
- ○ 실적 위주의 소액-다(多)매칭건수보다는 평가방식 및 협력사업의 실질적 성과에 따라 선택적 집중 투자를 모색 검토
- ○ 계약기간 중 1지역(1공연장)-1개 예술단체의 매칭 모델을 소단위 광역지역으로 확장 검토
  예) 서대문구(거점 공연장-서대문문화회관)의 1개 상주단체를 권역별(서부지역 - 은평구(은평문예회관) · 마포구(마포아트센터))로 활동반경을 넓혀 프로그램 순회, 확대 보급.
  성동구(동부지역 거점 공연장-소월아트홀) →동대문(구민회관)·중랑(구민회관)
- ○ 1개 공연장-2~3개 예술단체의 현재 매칭방식을 수정, 1공연장-1예술단체의 원칙 수립으로 '상주'의 기본 개념을 살려 양자간 파트너쉽의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 매년 '서울시 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가칭)을 개최, 창작작품을 상주공연장 間 상호 교환공연 및 자치구 문예회관 순회공연으로 성과 발표 및 서울 전지역 자치구 공연장 활성화

6. 프랑스의 극장 사례

○ 국립거리극제작소·국립거리예술센터·파리시립예술제작소·파리시립문화센터 등은 상주예술단체에 관한 한, 기존 레퍼토리보다는 새로운 창작작품 제작 위주로 지원

○ 또 초연 작품은 파리 뿐 아니라 프랑스 전역과, 나아가 각종 축제 참여와 초청을 통해 해외무대에 펼치고 있음

○ 파리시립문화센터의 경우 상주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그것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문화적 소통에 노력하고 있음

○ 이들 거리극제작소, 거리예술센터, 시립극장들은 예술단체에 대한 다양한 중장기적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창작 지원에 많은 예산과 시설을 지원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의 상주공연장–상주예술단체의 매칭 운영사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음.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개선 토론회

Ⅳ. 세션3

극장과 예술단체가 함께 성장하는 공연문화

발제문

극장과 예술단체가 함께 성장하는 공연문화
“Not for me, not for you, but for us.”

유형민 (한소리회 기획실장)

1. “극장과 단체가 함께 성장하는 공연문화를 위하여”

① 단체소개 : 한소리회

○ 2000년 창단이후 현재까지 16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 109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찾아가는 음악회, 9회의 해외초청연주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단원들은 광주를 중심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 유학파 중견성악가들과 지역의 실력 있는 젊은 신인 성악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② 상주극장소개

○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305석)
광주지역 최대의 복합쇼핑공간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멀티플렉스극장, 식당가가 이어 진 동양최대의 종합 버스터미널에 자리 잡고 있는 클래식 전용극장이다. 2009년에 오픈해 하루 유동인구가 1만여 명 이상이 된다. 금호갤러리와 동산아트홀(연극전용 블랙박스극장150석) 과 함께 위치하고 있다.

③ 사업진행상황

○ 공연사업 : 3시의 한소리 데이트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역은 사업시작이 타 지역과 달리 조금 늦은 6월에 착수되어 빠듯한 일정 속에서 진행 되었다. 선정된 총 6개단체중 한소리회는 클래식 분야에서 유일한 단체이다. 6월에 모녀음악회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3시에, 여자들의 수다,

가족과 함께 하는 열린 음악회,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한 음악회, 유쾌한 콘서트, 늦은 가을음악회, 그리고 지난 12월 11일 토요일 오페라 Highlights를 끝으로 지난 1년 사업을 마무리 했다.

이와 별도로 순수 아마추어 여성 합창단인 한마음 여성합창단을 교육하여 지난 12월 4일 금호아트홀에서 공연을 가졌다.

○ 퍼블릭 프로그램 : 한마음 여성합창단

25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총 20명이 구성되어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1시간 30여분 동안 한소리회의 주요 성악가들이 교육함으로써 다양한 장르의 음악(우리 가곡, 외국 가곡, 민요 팝송, 가요 등)을 안무와 함께 배울 수 있다. 첫 행사로 12월 4일 성공적인 공연을 마쳤다.

○ 3시의 한소리 데이트"만의 특징

매달 같은 공연장에서 같은 시간에 공연이 이루어져 관객들이 기억하기 쉽고 매회 주제가 다른 음악회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날 수 있으며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고 재미있는 해설을 곁들여 좋은 반응을 얻어 냈다. 또한 클래식이라면 지루하고 딱딱할 것 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출연한 성악가들이 정통적인 클래식 이외에도 팝과 민요 가요 뮤지컬 등 장르를 넘나들며 노래하며 연기와 안무를 함께 선보이는 등 최선을 다해 공연에 임하였다. 또 매회 유명인(뮤지컬가수, 탤런트, 유명 성악인, 국악인, 피아니스트) 들을 초청하여 한소리회원들의 반복 출연으로 자칫 식상할 수 있는 공연에 활력소를 불어 넣었다.

④ 홍보 및 마케팅

○ 유동인구가 많은 공연장 특성을 살려 배너 및 현수막, 전단지를 공연장 주변 식당가, 백화점, 영화관입구에 상시 설치 및 배포하여 한소리회를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게 되었다. 또 라디오와 TV에 자주 출연하여 공연홍보를 하였으며 상업광고를 이용하여 광주MBC-TV와 KBC광주방송에 각 40회씩 총 80회를 주요 시청 시간대에 광고를 내보내어 한소리회를 각인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성과로 스스로 매달 공연장을 찾아오는 고정관객을 확보 하였으며 입소문을 통한 또 다른 유료 관객층이 매회 공연 마다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전문 홍보 인원을 고용하여 매달 지인들과 고정 팬들에게 문자와 메일 서비스를 통하여 공연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타 상주단체들과 협력하여 공동 홍보 인쇄물을 만들고 관객

을 서로 호환함으로서 공연을 많이 참여한 관객들에게 티켓을 할인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현장판매를 통하여 매달 유료관객이 60%이상 차지하게 되었다. 이 통계는 광주의 타 공연단체의 티켓 판매율로 볼 때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⑤ 상주단체 선정 후의 달라진 점

○ 시민들에게 한소리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 점이 가장 큰 수혜이다. 그리고 기존에 자체제작 경비에 의존 해 왔던 것과 달리 공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음으로써 여러 면에서 달라지게 됐다.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된 상황에서 완성도 높은 공연을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로 다양한 공연물의 창작 및 제작, 기획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끝으로 상주단체로서 선정된 후 심적인 안정감을 갖게 돼 예술 작품과 일반인 강의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공연장 대관에 있어서는 타 단체보다 상주단체에게는 유리한 조건(대관료 할인, 연습실 이용, 대관일 조정)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점과 공연장이 있는 곳이 젊은 청소년과 가족단위 쇼핑객이 많은 지역인 까닭에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관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영화관람 이전에 공연장을 찾는 경도 가끔 있다.

○ 사업진행의 문제점

매달 관객을 만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야 하므로 타 지역 단원들이 공연 외에 연습을 위하여 여러 번 광주를 방문을 해야 하는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레퍼토리를 공연 할 수 있다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겠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매번 만들어 내기에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내년도 사업으로 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올릴 경우 장기 공연 형태가 바람직하나 극장 여건이나 여러 여건상 사업 전에 신중한 검토와 함께 극장과의 합동기획공연 형태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 퍼블릭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문제점

사업시초에 조금 더 자세한 언급이 있었다면 더 탄탄한 기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 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사실 극장의 도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의 상당부분과 인력을 투입해서 매주 프로그램을 진행 시키면서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낀다. 이제 막 씨를 뿌리고 물을 줬을 뿐인데 벌써 열매를 맺었나 확인 해 보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 힘들 때가 많다. 물론 가장 보람 있

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좀 더 길게 보고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게 하거나 꼭 직접적인 교육에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모색 할 수 있었음 한다.
이 사업을 발판으로 명실상부한 전문 단체로 거듭 나야 하겠지만 사업자체가 한시성이기도 하고 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야말로 퍼블릭을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평가를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준을 떠나 장기적 안목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 극장과의 갈등

이상적인 상주단체의 목적은 극장과 단체가 동반자의 입장에서 서로 협력해서 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위해 할 수 있는 공간의 지원, 홍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단체 역시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관객을 확보함으로서 극장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킬 수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주단체와 극장 간의 협약내용이 분명히 명시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지난 6개월간 한소리와 상주 하고 있는 금호 아트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주 부딪쳐왔다. 전문 예술 감독이 없이 기술 감독들이 사무까지 겸직 하고 있어 인원 부족으로 인해 두 공연장이 동시에 공연할시 한쪽은 조명이나 음향감독, 무대감독의 공백을 각오해야 한다.
상주단체 중에서도 극장의 여건상 상주 할 수 없는 곳도 있다는 걸 잘 알지만 한소리처럼 대관 이외에 홍보나 인력, 기획, 연습장소나 상주할 사무실중 그 어떤 것도 지원이 안 되는 극장은 없을 것 같다. 사업초기 협약서에 명백히 명시하고 시작해야 했지만 아직까진 극장은 강자이고 단체는 약자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들의 말을 믿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무대감독이나 직원들도 최고 결정권자의 말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애로점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주단체가 뜻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서로 각자 위치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문화예술위원회의 권고가 따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외에 세부적인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각 단체의 사정이 다르고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향후 토의 후 좀 더 이해와 타협으로 타결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본다.

2. 영국의 상주단체와 극장의 아름다운 파트너 쉽

"Not for me, not for you, but for us" – 영국 BAC 극장의 구 표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위원회의 배려로 영국의 극장과 단체를 둘러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주어졌다.

극장 측 한분과 세군데 단체의 실무 담당자들이 김석홍 구로 아트밸리의 공연 기획 팀장의 인솔 하에 400여년이라는 긴 공연의 역사를 가진 영국으로 떠났고 현지 코디네이터인 정명주 선생님과 함께 갑자기 내린 눈으로 멈춰버린 도시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극장에서 극장으로 열심히 찾아 다녔다.

우리나라의 예술의 전당이나 지방 대도시의 문화예술회관 형태의 대규모 극장도 찾아가고 역사와 함께 생존해 있는 아름다운 옛 극장들도 보면서 부러움과 시기, 희망과 절망의 복잡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계획에 없었던 런던 외곽의 작은 주민센터 같은 Albany극장에 가서 공공을 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가져야 하는 정신을 배웠다. 외국 이민자들과 흑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에서 이 극장은 예술을 통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방황을 하는 청소년들을 흡수하여 예술 작업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 치유 되게 하고 사회일원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더 나아가 극장의 스탭이 되고 공연기획자가 되게 하는 감동스런 결과를 가져왔다. 예술이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고귀한 형태로 살아 숨 쉬게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단체나 극장이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같이 손잡고 주민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서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영국에서 가장 부러웠던 극장은 오래된 시청 건물을 125년 동안 무상 임대해 쓰고 있는 BAC극장이었다. 건물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극장과 단체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할 때 그 낡은 곳이 예술가들에게는 꿈의 공장이 될 수 있고 극장에게는 세계최고의 단체와 쇼를 배출해 낸 최고의 요람으로서 긍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기에 눈물나게 부러웠다.

그들은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물을 계획단계에서 전문가와 실제 공연을 보게 될 관객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연이 흥미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 완성된 작품이 다음단계인 공연시장에 팔려 나갈 수 있도록 만든다.

가난하지만 창작력 있는 젊은 예술가들과 의식 있는 극장과 예술감독 그리고 그들의 꿈을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예술위원회와 기부자들 그리고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예술을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도 아닌 우리를 위한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400여년이라는 역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얻어진 성과라면 감히 백년도 안 된 역사를 가진 우리가 시기나 열심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해하고 타협하고 싸워서 우리만의 새로운 역사를 꿈꿔봄이 어떨까 한다.

토론문

강경석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극장과 단체가 함께 발전하는 공연문화」에 대한 몇 가지 생각

1.

오늘 제가 맡은 지정토론의 주제는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형민 '한소리회' 기획실장님의 발제문 「극장과 단체가 함께 발전하는 공연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발제를 통해 설명되어 있다시피 한소리회는 2010 공연장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광주 유스퀘어문화관의 금호아트홀에 상주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유형민 실장님은 발제문을 통해 현재의 사업진행 상황과 지난 6개월 사이에 드러난 사업의 문제점, 극장 측과의 갈등요소들을 현장경험 중심으로 적절히 요약하면서 '예술위' 주최의 영국 연수체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대안적 사례와 논평을 곁들여 발제문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이 발제문에 지적된 문제점들은 우리 인천지역의 사례와 겹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오늘 오신 여러 지역의 관련 실무자 분들도 함께 생각해볼 만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와 토론문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 여력이 충분치 않았으므로 내실 있는 현장토론을 통해 원고의 미진한 부분들이 보충되길 기대하며 발제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과 그에 대한 제 소견을 중심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2.

우선은 지원기관의 입장에서 떠오르는 몇 가지 구체적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한소리회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지엽적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먼저 공연홍보를 위해 '광주MBC'나 'KBC광주방송'에 무려 80회에 걸친 광고를 집행하셨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자비, 지원금, 방송사 협찬, 기타 후원 중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셨는지요. 지역 사정에 어두워 오해한 것이겠지만 겨우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80회의 TV광고를 집행했다는 사실은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호아트홀에 상주한 이후 유료관객을 60%까지 확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체 평균 좌석점유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만약 이것이 전체 좌석수를 기준으로 한 유료관객 비율이라면 매우 고무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상의 두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천지역도 공연콘텐츠의 홍보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상주단체로 지원을 받게 된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재정적 안정'을 꼽으셨는데 발제문 어딘가에도 나와 있듯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입니다.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간의 성과들을 어떻게 이어나갈 계획이신지 의견이나 전망을 주시면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진행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대목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레퍼토리의 다변화 요구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발제문의 맥락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광주문진위가 매달 새 프로그램을 선보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실 관계는 따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공연콘텐츠는 그 장르적 특성상 고정된 원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번 현장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하나의 레퍼토리를 반복해서 공연한다고 하더라도 그 레퍼토리가 고정불변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매회에 걸친 평가와 수정을 거쳐 점점 진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연장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체별 대표 레퍼토리가 중장기적인 전망 아래 개발되고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지원이 되어야지 콘텐츠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양적 편향의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을 지원하고 공연쇼케이스나 실연평가를 통해 단체와 관련 전문가, 일반관객이 만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여 활발한 교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존의 레퍼토리들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극장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극장측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기획, 홍보, 공간, 인력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신 듯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와 극장 간 협약문건을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사업을 총괄기획한 문예위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중재에 나서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물론 둘 다 중요한 일이지만—이중 어느 요건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연기획과 홍보 등의 분야에 전문인력을 갖춘 공연장이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흔치 않다는 점이고 이는 우리 인천지역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주단체와 공연장을 투트랙으로 별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단체에 지원금을 우선 총액지원하고 단체를 통해 공연장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연장들이 지원 수혜단체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성을 띄게 되고 또 이를 지속하기 위해 부족한 여건이나마 파트너쉽 조성에 힘쓰게 되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일종의 공연장 유인책이지요. 물론 효과를 본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와 공연장 간의 갈등이 아직까지는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그러나 이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사업이 이상적인 취지에 비해 현실여건의 뒷받침을 받지 못함으로써 애초의 기대효과를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는 레지던스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이 중앙에서 만들어져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빚어진 문제들과도 동일합니다. 지역별로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 기획되어 내려온다 해도 현장이 이를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의 시행초기라 아직까지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엔 이른 점이 있고 경험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행착오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사업의 결과물을 당장 기대하기보다 발전된 결과물이 만들어질 과정을 지원하고 또 성숙시켜 나간다는 입장에서 지원주체와 수혜단체, 공연장 간의 섬세한 상호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지점들에 대한 토론은 종합토론 섹션으로 넘기기로 하고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문

김옥련 (김옥련발레단 대표)

안정적 창작 활동 수행을 위한 초석을 다진 2010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마치며

1. 상주단체- 김옥련발레단

- KOR Ballet Company는 부산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창작 활동과 미래관객 개발, 소외지역 찾아가는 발레 공연,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공헌의 장기운영을 목표로 1995년 창단 이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쉽고 친근하게 재밌게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작품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무용 장르 간 교류와 타 예술 장르와의 공동 작업으로 지역 소재의 창작품〈금샘의 방주〉, 〈을숙도 아기고니〉,서양 발레의 한국화와 현대화 작품〈날개〉,〈영혼의 동반자〉,국내 최초이며 최장기 공연인 어린이와 엄마를 위한 〈숲속발레〉등 60여개의 신작을 초연 하였으며, 우수 레퍼토리의 정착화 시도로 창작발레 활성화와 예술교육 프로그램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해운대문화회관 상주단체이며, 부산광역시 예술전문 단체로 지정된 발레단이다. www.kdance.co.kr

2. 공연장-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495석 / 다목적홀-110석 / 야외공연장)

2007년 설립

3. 2010년도 사업 내용

1) 날개

대공연장- 관객 810명

2) 가자! 춤추는 바다로

해운대해수욕장- 관객 450 여명

3) 별별별 이야기

장산 대천호수- 관객 420 여명

4) 분홍신 그 남자

대공연장– 관객 815명

5) 교육프로그램– 춤추는 전투화

제53육군 보병사단– 교육생 월 10명~18명

4.공연장 지원 내용

1) 공연장 대관

2) 리허설 연습실 사용

5.상주단체 운영 내용

1) 협력여건 운영경비– 11,040,000원

2) 단체 운영경비– 16,560,000원

3) 협력 프로그램 제작– 27,600,000원 (사업총예산– 55,200,000원)

6.관객 개발 (홍보 및 마케팅)

– 반상회(18개동 동장님), 해운대구청, 문화바우처, 사랑티켓, 지역사회 특수 관람수요층 영(군부대),중.고등 학교, 관광객

7.사업의 긍정적 효과

– 종전의 지원 사업 방법이었던 일괄지원제도를 경쟁시스템 으로 전환 했다는 점
– 지방 예술단체로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기틀을 마련
– 활력 잃은 지방 예술 단체에게 상주단체 경쟁시스템의 도입이 사업성 위주로 전환돼 자신 부여와 전반적인 기량과 관객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을 기대
– 예술단체 활동의 지원을 위해 지위불안과 경제적 위기감을 덜 수 있는 현실화 된 제도적 장치로 평가

8.사업 문제점

- 공연장 연간 기획공연의 계획안에 좀 더 비중 있게 접근 하고자 함-실제 공연장 예약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어렵게 2회 공연을 대관.
- 부족한 예산 탓에 작품성을 끌어올리기가 힘들었고 상주단체라 하더라도 안정적 인적.물적 기반의 확보는 어려웠다.
- 극장의 문화적 지향점과 단체의 예술적 방향성을 공유해야만 문화적 토양을 마련할 수 있으며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형식적인 협약을 실질적인 관계로 끌어 올리는데 예술 위원회가 나서주기 바람.

9.사업의 개선방안

- 지역 문화 단체나 지역구(해운대)청과의 적극적인 연계로 좀 더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마련.
- 전문성 있고 조직력을 갖춘 예술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필요
- 전체예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지원 제도를 도입(안무, 기획, 홍보 ,미술, 음악 등)하여 예산 중 공연 제작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
- 상주단체 진행 인력 수급을 공연장 행정 인력, 기술 인력으로 지원(상시 전담팀)

10.향후계획

- 독자적 프로그램과 레파토리로 수익사업으로의 발전을 모색-연간 800만을 넘어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적인 소재로 수준 높은 작품을 개발 (예: 중국 심천의 송성가무쇼, 러시아 볼쇼이 발레 등) 전용 극장, 전속 예술단원을 육성 연간 공연을 기획
- 지역문화를 대변하는 예술단체로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창작공연을 기획
- 도시의 색깔과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벤치마킹의 모형모색

*** 퍼블릭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해 상세히 듣고자 합니다.**

*** 영국의 상주 단체를 통해 우리가 해야할 공동의 과제는?**